

##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

- 선박안전법 전부개정안, 07' 4월부터 출범 -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협회의 명칭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선박검사 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79년도 어선협회 설립이후 30년 가까이 조직의 기능에 맞지 않는 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옴으로써 그 동안 협회가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권익 단체로 오해를 받아 왔으나 이번 명칭 변경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 제2회 혁신우수사례(BP)경진대회 개최



- 제2회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지난 12월 1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1년간의 혁신실적을 점검하고 혁신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회 혁신우수사례(BP)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팀(지부)별로 접수된 총 16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7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이번 대회를 본부를 비롯한 17개 지부의 직원들이 영상회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함으로써 혁신을 통해 이룬 성과를 전 직원들이 공유토록 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로는 “어업 공지방송을 이용한 협회 홍보의 활성화”, “매뉴얼의 개념이 바뀐다”, “더 이상의 불법개조는 없다”, “삼천포 개항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해양사고 사진전” 등이 있었으며, “전자금융체계 도입에 따른 업무 혁신” 사례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한편 검사협회 김성규 이사장은 발표회 총평에서 지난 해보다 크게 향상된 혁신 성과를 일구어낸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이러한 혁신우수사례를 모델로 삼아 내년에는 더욱 우수한 혁신 사례를 엮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